

해외출장보고서
2017.12.20. ~ 12.23.
중국/시안

제4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 사업
한·중 국제세미나
‘일대일로 관련 한·중 산업협력’
개최 및 참석

2017.12.29.

박소희(중국산업연구부)

 **KIET** 산업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
Economics & Trade

I. 출장개요

1. 출 장 자 : 유병규(원장), 조철(중국산업연구부장), 김천곤(서비스정책연구실장), 조재한(글로벌전략연구단), 박소희(중국산업연구부)
2. 출장기간 : 2017.12.20.(수) ~ 2017.12.23.(토) (3박 4일)
3. 출 장 지 : 중국/시안
4. 출장목적 : 제4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 사업 ‘일대일로 관련한 중 세미나’ 개최와 유관기관 간담회 및 산업현장방문을 통한 산시성의 경제현황 및 산업동향 파악과 일대일로 배경 하에서의 한중협력방안 모색

II. 세부일정

일자 (요일)	장소	시간	주요 일정
12.20 (수)	인천 -시안		인천 출발-시안 이동
		18:00 ~20:00	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및 참석 (중국 현지 사정으로 세미나 준비회의에서 유관 기관 간담회로 변경됨)
12.21 (목)	시안	08:00 ~21:00	제4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 - 한·중 국제세미나 ‘일대일로 관련 한·중 산업협력’ 개최 및 참석(중국 시안 산시사범대학교)
12.22 (금)	시안	09:00 ~12:00	산업현장방문(삼성반도체)
12.23 (토)	시안 -인천		시안 출발-인천 이동

Ⅲ. 출장 수행내용

1.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및 참석

(1) 일정개요

- 날짜/장소 : 2017년 12월 20일/한국관(중국 시안)
- 참석자 : 산업연구원 출장자 및 북경지원 출장자, 주영준(대한민국주중대사관), 이관규(KOTRA 시안), 서종원(한국교통연구원), 이현태(대외경제정책연구원), 강승익(신화국제물류유한공사), 허노현(원익반도체), 김일호(중소벤처기업부), 김상우(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) 외 시안 소재 유관기관 대표

(2) 주요 논의내용

- 중국 시안에 진출해 있는 유관기관들을 통한 산시성 경제현황 및 산업동향 논의
 - 산시성의 전략산업은 ‘大西安전략’에 제시되어 있는데,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완성차 산업 등이 있음.
 - 삼성전자의 시안 진출(2012) 이후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진출이 이루어짐.
 - 삼성 협력사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삼성의 2기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.
- 일대일로 사업 관련 논의
 - 시안은 과거 실크로드의 시발점으로 향후 일대일로 구축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도시로 한국기업이 일대일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함.
 - 중국 정부 및 산시성은 2018년 대대적인 일대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

2. 한중세미나 개최 및 참석 : 발표 및 토론

(1) 일정개요

- 날짜/장소 : 2017년 12월 21일/산시사범대학교(중국 시안)
- 참석자 : 사회자, 발표자, 토론자 등 세미나 참가자(아래 세미나 프로그램 '회의내용' 참조), 산시성정부 과학기술정책처 관계자 및 산시사범대학교 국제상학원 학생 외

<세미나 프로그램>

순서	시간	회의내용
개회식	사회자	레이홍전 교수 (중국 산시사범대학교 국제상학원 원장)
	9:30 ~10:20	세미나 참가자 소개
		중국 산시사범대학교 간부 환영사
		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 인사말 주중한국대사관 주영준 상무관 인사말
단체사진 촬영(문란루 앞) 및 산시사범대학교 국제상학원 '일대일로' 연구센터 개소식		
세션 1: 일대일로 관련 한중 경제정책 협력	사회자	장슈후이 교수 (중국 산시사범대학교 국제상학원 부원장)
	10:30 ~11:00	○ 발표 1 : 리중민 교수 (중국 산시금융자산관리주식회사 감사장, 민주건국회 중앙위원, 산시성 위원회 부주임, 산시성 경험상무위원 겸 경제위원회 부주임)
		○ 발표 2 : 레이홍전 교수 (중국 산시사범대학교 국제상학원 원장)
	11:00 ~11:30	○ 발표 3 : 조철 부장 (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)
○ 발표 4 : 이현태 박사 (대외경제정책연구원)		
11:30 ~12:00	○ 단체토론 ○ 쉰이당천 교수 (중국 산시사범대학교 국제상학원) ○ 허린 부교수 (중국 산시사범대학교 국제상학원) ○ 김동수 박사 (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) ○ 조재한 박사 (산업연구원 글로벌전략연구단)	
오찬	12:00 ~14:30	휴식 및 오찬
세션 2: 일대일로 관련 한중 산업협력	사회자	인하이웬 부교수 (중국 산시사범대학교 국제상학원 부원장)
	14:30 ~15:00	○ 발표 5 : 저우샤오웨이 교수 (중국 산시사범대학교 국제상학원)
		○ 발표 6 : 쉬쥘 교수 (중국 산시사범대학교 국제상학원)
	15:00 ~15:30	○ 발표 7 : 조용원 박사 (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)
○ 발표 8 : 서종원 박사 (교통연구원)		
15:30 ~16:00	○ 단체토론 ○ 왕자오핑 교수 (중국 산시사범대학교 국제상학원) ○ 셴원 부교수 (중국 산시사범대학교 국제상학원) ○ 이관규 관장 (KOTRA 중국 시안 무역관) ○ 김천곤 박사 (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) ○ 박소희 박사 (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)	
만찬	16:00~20:00	캠퍼스 참관 및 만찬

(2) 주요 내용

□ 한국 측 발표 내용

○ “새로운 경제 환경 하의 한중 경제 협력방안” (산업연구원 조철 중국산업연구부장)

- 중국제조 2025 전략에 이어 19차 당 대회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는 등 협력환경이 변화 중이고 세계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이 매우 심한 상태
- (한중 경제관계의 딜레마) 중국이 질적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국가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고, 중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한중이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 중
- 한중 FTA를 통해 양국 시장 개방을 보다 확대해야 하고, 특히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및 투자부문 추가협상을 추진할 필요
- 한중 간 제품 차별화를 통해 분업 구조를 형성하고 일방적인 기술 공여나 수용이 아닌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해야 함.
- 창업 및 벤처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표준, 형식승인, 인증, 환경규제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

○ “한중 석유화학산업 구조변화와 한중협력방안” (산업연구원 조용원 박사)

- (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특징) 항만 인접 국가산단에 집적하여 원가절감 효과를 내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며 중국 및 아세안 시장 수출의존도가 높고 범용제품과 중간재 중심

- 한국은 정부 주도 하에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주도 하에 신제품개발, 수출수요 대비 연구개발 등을 진행
- (중국 정부의 석유화학 구조고도화 정책) 13·5규획에 의한 석유화학기업 혁신 전략, 서북부지역 석탄화학 생산설비 투자 등을 포함
- (중국 석유화학산업 전망) 13·5규획에서 10대 중점분야로 선정된 (중국)미래성장동력산업의 핵심 소재 및 중간재 공급 역할을 담당할 것
- (한국의 대중 지역별 수출 변화, 2006~2016) 수요산업 집적지역으로 수출이 집중되고 중국 동부 연안지역 중심으로 확장되었으며 중간재는 동부 연안지역에서 서부 내륙지역으로 이동하고 최종재는 동부 연안지역에 집중
- (한중 석유화학산업 협력방안) 범용제품은 석탄화학 프로젝트에 참여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, 고부가제품은 중국 수요업체가 구축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할 필요

○ “일대일로와 한중 교통물류 협력” (한국교통연구원 서종원 박사)

- (중국 일대일로 구상의 중점 협력 부문) 정책, 인프라, 무역, 자금유통, 인적교류
- 일대일로의 추진을 위해 중국은 핵심 프로젝트인 6대 경제회랑을 제시
- (한국 신정부의 동북아 전략) 서부권 산업·물류·교통벨트와 동해권 에너지·자원벨트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; 신북방정책과 신남

방정책을 구현하는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 정책 추진

- (한중협력방안) 중국의 일대일로와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통 물류협력을 통한 한중경제협력을 이끌어내고,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(AIIB)을 통해 아시아 교통인프라 개발을 통한 한중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.
 - (일대일로와 한반도신경제지도 연계) 철도, 도로 및 항만개발을 통한 경제회랑 구축, 철도, 해저터널 연계를 통한 메가 경제권 개발 등
 - 중·유럽 화물열차이용을 위한 한중 물류협력 및 시안, 호르고스, 연운항 등 주요물류거점에 한국물류단지 구축을 위한 협력 필요
- “일대일로 전략 하에 한중 협력 평가와 전망-AIIB를 통한 한중 제3국 인프라 진출방안을 중심으로”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현태 박사)
- 일대일로 전략의 성과로는 30여 개 국가와의 국제 산업 및 에너지 관련 협정 체결,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발전 등이 있음.
 - 일대일로 전략은 현재 유라시아 인프라 사업의 낮은 수익성,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정치적 불안 등의 난관을 겪고 있는데, 한중 협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음.
 - (한중협력유형) 한중이 AIIB를 통해 제3국 인프라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법이 있고, 해외건설사업 유형으로 단순도급형, 시공사 금융주선형, 투자개발형(PPP 포함)이 있음.
 - 제3국 인프라 시장에 대한 한중 공동 진출은 양국 모두가 원-

원하고 나아가 인프라 건설을 통해 제3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윈-윈-윈 전략이 될 것.

- 한중 공동 협력 전략은 인프라 건설을 중요 목표로 삼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, AIIB 및 실크로드 기금 등과 맞물려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□ 중국 측 발표 내용

○ “한중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 발전과 협정” (산시사범대학교 국제상학원 저우샤오웨이 교수)

- (한중 교역 현황)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급성장 단계에 진입하여 2016년 양국 간 교역액은 1992년보다 33배 증가했고, 수출입 상품 구조가 점차 고급화되고 한중간 투자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
- (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구성 및 내용) 총 22개의 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있고, 상품 무역, 서비스 무역, 투자, 무역편리화 대책, 무역구제 및 재산권 보호, 분쟁 해결기제 등을 포함
- (한중 양국 간 무역 분쟁 해결방법) 양국의 정부 기관은 무역 관련 법률·법규와 집행 절차에 대해 충분히 교류하고, 양국 간 교역 조화 기제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무역 마찰을 최소화해야 함.
- 수출품의 다원화, 수출품의 품질과 등급, 특히 첨단기술제품의 수출 점유율 제고 등 수출품 구조 조정 및 최적화를 통해 기술 무역의 대대적인 발전을 추진할 필요
- 투자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 관련 부서가 양질의 투자

환경을 조성하여 양자 간 투자를 강화할 수 있음.

○ “공급측 개혁에 기반한 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 발전”(산시사범대학교 국제상학원 레이홍전 원장·교수)

- (공급측 개혁의 개념) 공급, 생산 측면에서 생산력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것.
- (공급측 개혁의 핵심) 생산 구조를 개선하여 전 요소의 생산율을 제고하는 것.
- ‘수출, 소비, 투자 트로이카’에서 ‘공급측 개혁’으로의 단어 변화는 국민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공급 측에 대한 요구가 증대한 중국 경제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.
- (‘경제구조개혁’의 4가지 핵심내용) 과잉설비문제 해결을 통한 산업 고도화 및 재편 추진; 비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우위 유지; 부동산 미분양해소로 부동산산업발전 추진; 금융 리스크 완화로 파이낸싱 활성화, 기본 제도 마련, 철저한 시장 감독, 투자자 권익 보호 등의 조건이 갖춰진 주식 시장 조성
-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, 중고차, ‘중국 제조 2025’, 신소재, 핵심 부품 등을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삼고, 투자 파이낸싱, 증권화, 보험 등 금융 수단을 중점 지원하여 금융 등 하이엔드 서비스기능을 강화할 예정

○ “일대일로 관련 한중 제조업 심도 협력” (산시사범대학교 국제상학원 쉬전 교수)

-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중 제조업의 심도 있는 협력에 관해 발표

- (세계 제조업의 전이과정) 1차 전이는 미국→일본; 2차 전이는 일본→아시아의 4마리 용(한국 포함); 3차 전이는 아시아 4마리 용 + 중국(대륙); 4차 전이는 산업가치사슬의 전이
- (한중 제조업의 1단계 협력) 1980~2000년에 이미 시작되었고 중·저급 노동집약형 산업에서의 상호보완이 특징
- (한중 제조업의 2단계 협력) 2000~현재 진행 중이며 기존의 상호보완과 중·고급 산업에서의 (한중 양국) 경합이 공존하는 국면으로 진입
- (한중 산업 협력 공간) 일대일로의 큰 배경 하에서 에너지 자동차, 반도체, 고속철 등과 관련하여 한중간 협력 가능 공간이 존재

3. 산업현장방문 : 시안 삼성반도체

(1) 일정개요

- 날짜/장소 : 2017년 12월 22일/삼성반도체(중국 시안)
- 참석자 : 산업연구원 출장자 및 북경지원 출장자, 주영준(대한민국주중대사관), 서종원(한국교통연구원), 이현태(대외경제정책연구원), 시안 삼성반도체 임백균 법인장 외 삼성전자 임직원

(2) 주요 면담내용

□ 삼성전자 시안 법인 및 반도체 사업 소개

- 산시성은 한반도의 93% 정도 크기의 인구 3천8백만 명의 성으로 중국 내 최대 지하자원을 보유
-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V낸드 생산을 주로 하며 약 3,400명을 고용하는 시안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
- 삼성전자는 2012년 시안에 투자를 시작하였으며, 세계 IT 생산 시장을 선점하며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 및 글로벌 제조업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 결정
- 종합보세구역에 협력사들이 함께 위치하고 있으며 외자기업으로서 CSR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(2016년 6,060만 위안으로 외자기업 중 1위를 차지)

IV. 출장의 성과(또는 시사점)

1.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및 참석

□ 산시성 경제현황, 산업동향 및 일대일로 사업 관련 논의

- 시안에 진출해있는 유관기관들을 통해 산시성의 경제현황 및 지역적 특징과 시안 현지 진출기업 현황 및 배터리산업, 반도체산업, 물류 등 세부 산업 동향을 파악
-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중 혹은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해 논의

2. 한중세미나 개최 및 참석 : 발표, 토론 및 중국학자들과 교류

□ 일대일로 관련 한중 경제정책 및 산업협력방안을 공동 모색

- 새로운 경제 환경, 공급측 구조개혁, 일대일로 등의 배경 하에서의 한중 간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
- 한중 무역, 한중 자유무역협정, 제조업, 석유화학산업, 교통 분야 등 산업 전반에서 세부 업종에 이르기까지 한중 간 심도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
- 일대일로의 출발점인 시안에서 산시사범대학교와 한중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한중 간 지속적인 연구교류 및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.

3. 산업현장방문 : 시안 삼성반도체

□ 삼성전자 시안 법인 및 반도체 사업 소개

- 삼성전자 시안 법인 및 반도체 사업 소개와 질의응답을 통해 중국 산시성과 시안의 지역적 특징,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파악
- 전시관 관람 및 window FAB tour를 통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발전사와 제품발전현황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업종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증진

V. 참고자료

1. 한중세미나 포스터

제4차 유라시아
지식네트워크 구축 사업 - 한·중 세미나

**일대일로 관련
한·중 산업협력**



일시
2017년 12월 21일 09:00~20:00

장소
중국 사안시 산시사범대학교
장안캠퍼스 문관루 1층 회의실

 

2. 사진

일대일로 관련 한중세미나 개최 : 발표자 및 토론자 단체사진(2017.12.21)



일대일로 관련 한중세미나 : 발표 및 토론(2017.12.21)



일대일로 관련 한중세미나 : 발표 및 토론(2017.12.21)



시안 삼성반도체 방문(2017.12.22)



삼성반도체 임직원과의 면담



삼성반도체 전시관 관람

